

“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김미경 _ 2015년 새롭게 단장된 「언론  사람」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내용이 조금 바뀌었네요. 그래도 기존에 제가 즐겨보던 ‘신동의보감’이 그대로 남아서 저희 가족이 올해도 건강하게 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기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신년호 ‘특별기고’에서는 발레의 역사에 대해서 재미있게 써 주셔서 잘 읽었습니다. ‘음식이야기’도 재미있었는데, 대구어와 대구어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함께 실었다면 좀 더 완성도 있는 음식이야기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의 집의 건강 지킴이 ‘신동의보감’ “배애플”도 유익하게 잘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짧지만 완성도 있는 구성과 내용이 참 좋았던 신년호였는데요. 정작 중요한 언론과 중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언론이 대중에게 파급되는 속도와 파장이 큰 만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현명하고 공정한 중재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광표 _ 새해를 맞이하며 도서관에 들렀다가 주간 서적 코너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사보 「언론  사람」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참 알차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직원마당’의 “취업이라는 삶의 한 여정을 지나며”라는 기사를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어렵게 취업해 신입사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가끔은 긴장이 풀려 나태해질 때도 있는데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장 난 취업 프로세스를 고치고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취업준비생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윤희 _ 특별기고 지면에 삼화와 함께 실린 ‘알고 보면 더욱 재미있는 발레의 역사’를 보며, 단순한 무용의 종류로 생각했던 발레의 역사를 아름답고 재밌게 다뤄 인상적이었고, 예술지를 보는 것처럼 전문성을 갖춰 유익했습니다. 「언론  사람」 신년호 첫 페이지의 간결한 목차(Contents) 만큼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점 역할과 어렵게만 느껴졌던 언론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박학다식해진 느낌입니다. 정보지는 두꺼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인문학과 건강예방법(신동의보감) 등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몸과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었고, 다음 호 「언론  사람」이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통하는 창, 언론중재위원회 SNS.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www.facebook.com/pacnews



twitter.com/pac_news